

# 절세 위인과 평화번영의 시대

조선에서 세해 2019년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신년사로 맞이하였다. 온 겨레와 세인이 지켜보는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또다시 북남관계의 밝은 로정도를 제시해주시고 모두의 가슴마다에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깊이 심어주신 최고령도자님 이시다. 이남의 언론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신문, 방송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신년사를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는 지금 중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도 뜻깊은 이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새해초부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계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저마다 토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제적이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고 뜻깊은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2018년의 극적인 변화와 격동의 사변들은 위인을 모시어 조선반도에서 이루어진 특기할 변화이고 사변들이다. 밝아온 새해의 아침에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응대하신 통일구상과 대법한 결단, 뜨거운 민족애, 신걸지명의 예지에 의하여 지난 2018년에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졌은 충격과 환희의 사변들을 이 글에 담아보고자 한다.

과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 어떤 침공도 막아낼수 있게 자위의 역제력을 최대로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정세를 조선민족모두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놓으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통 큰 구상과 확고부동한 북남관계개선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수 없는 대법한 결단이었다. 그 따뜻한 신년사는 2018년의 북남관계갈등을 완화롭게 그린 설계도였으며 북남관계의 오랜 어둠을 가져주는 해빛과도 같았다. 자연의 태양도 한겨울의 강산은 녹일수 없다. 그러나 평양에서 울려 퍼진 2018년 신년사는 오랜기간 얼어붙었던 겨레의 마음을 후덥게 녹여주며 북남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하게 하였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평화의 집》 방영록의 뜻깊은 친필이 말해주듯 위험천만한 판문점에 나오시어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성사시키고 민족의 새 역사창조를 위한 장엄한 출발의 신호총성을 울려주신 최고령도자님 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표 말미 지점에서 보이는 판문점 《도보다리》를 산책하시고 담화도 나누시는 뜻깊은 장면은 대결과 긴장의 한복판인 판문점에서

부러 화해와 평화의 새 역사를 쓰고 머지않아 판문점의 작은 오솔길을 자주통일의 대령로로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응지와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온 세상의 감동을 자아내었다. 지금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있는 민족적 신념의 구절마다에도 최고령도자님의 자주신념이 빛날치고 민족연합의 정분과 정신이 어려있어 읽을수록 가슴이 후두위치고 민족의 메일에 대한 환희의 감정에 휩싸이곤 하는 우리 해외동포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4.27북남수뇌상봉이 있는 지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역사

수개월전, 문재인대통령을 최 대한 국민으로 성대하게 맞이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라고, 좋은 결실이 꽃피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에 평양에 오면 성대하게 연회를 준비하여 맞이 하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뜻깊은 9월에 평양상봉을 마련해주시고 문재인대통령에게 크나큰 환대를 베풀어주신 최고령도자님 이시다. 몸소 비행장에 마중나가시고 성대한 환영의 꽃물결도 펼쳐주시었으며 숙소에까지 친히 안내 해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신 모습을 뵈오며 온 남녘, 온 겨레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최고령도자님께서 4.27북남수뇌상봉이 있는 지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역사

만나 다정히 이야기를 하며 뜻과 정을 나누는것 같은 뜨거운 동포애의 생동한 귀감이었고 감격의 화폭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황홀한 무대를 펼쳐주시고 10여만명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도록 배려해주셨으니 그 넓으신 도량과 따뜻한 인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하랴. 4.27신언이 그리하듯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뜻깊은 조항들과 자자구구에도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최고령도자님의 확고한 의지와 대법한 구상, 통 큰 결단,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민족애가 질계 숨배어있다. 이남의 인터넷 들에는 《김정은위원장님 (한) 반도를 하나로 만들고있다.》, 《김정은위원장님의 사려깊은 배려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등으로 최고령도자님의 위인상을 칭송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울렸다. 2018년의 평양의 가을은 온 겨레에게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 평화번영을 향한 민족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준 잊지 못할 가을이었다.

## 희망의 밝은 빛을 준 신년사

지난 2017년의 마지막밤을 행성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위기의 마음안고 보냈다. 조선반도정세의 시계바늘이 바야흐로 전쟁이 터질수 있는 국면으로 치달아오르고있었던것이다 미국신문 《비즈니스 인사이더》 12월 21일부는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코퍼트드리기》 작전방안을 작성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미북군은 이남수뇌 및 군 병사들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였던 군인들로 교체하는데 착수하였던 일본에서 《자위대》가 조선반도의 군사출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모의시범을 진행하였다. 미국가리엔센터 국방연구국장 해리 카지아니스는 《2018년에 미국과 북이 싸움을 시작해 수백만명이 죽을수 있다.》,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면 지난 수십년사이에 우리가 지켜왔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를것》이라고 말하였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 민족화해와 단합의 불길은 어떻게 타올랐는가

올림픽은 순수한 국제체육축전이지만 정치가 개입되어 불미스러운 폐지를 남긴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있다. 국제체육발전과 나라를사이에 평화, 친선에 이바지해야 할 올림픽이 나치스의 선전무대로 된적도 있었고 동서냉전의 희생물이 되어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는 말들도 생겨났다. 고상한 올림픽이 레오의 살인무대가 되고 국가간, 민족간 알력과 분쟁을 더욱 조장시킨 아픈 나날도 있었다. 지난해 2월 평창에서 열린 제 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도 분렬된 조국의 한쪽에서, 전쟁의 도화선이 각일각 타들어가는 시점에서 벌어지는것으로 하여 대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이들의 깊은 우려와 위기를 자아내었다. 과연 성공한 올림픽이 될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고 준비하던 올림픽은 긴장과 대결의 조선반도에 민족화해의 불길을 지피고 전쟁시계를 평화시계로 돌린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자랑스레 기록되게 되었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화해와 희망의 불씨를 안고간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파견하신 북의 대규모사절단들이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예술단의 편성과 곡목선정, 가수들의 연기형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보내주신 삼지연편원악단의 축하공연은 이남관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북과 남은 하나이라는 민족의식, 통일의식을 가슴마다에 심어주었다. 대형통일무대를 앞세우고 북의 선수단이 남측 선수단과 개막식장에 공동 입장하고 봉화대의 불도 함께 달았으며 단일팀을 무어 출전함으로써 만수무강이 되고 합치면 더 큰 힘이 된다는것을 전세계에 부딪히 과시하였다. 북의 매력있는 대규모공연단이 펼쳐는 화려한 응원모습과 그들이 러치는 통일환성이 남녘관중들의 담례의 환호와 어울려져 경이장들은 민족화해의 후끈한 열기를 내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민족의 정을 담아, 관계개선의 의지를 담아 남녘에 보내주신 북의 추고위급대표단의 개막식참가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더욱 빛내이고 북남관계개선의 전도를 더 밝게 해주었다. 북이파낸 《말도말라.》고 손사래치고 외면하던 일부 이남사람들도 북녘사절들의 진정넘치는 모습과 활약을 보며 《북이 정치를 너무 잘한다.》, 《통일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수 있다.》고 하면서 추운 겨울날에 민족화해의 불기운을 안아오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결단과 민족애, 통일의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러친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찬 제작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개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화해와 평화의 메세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 판문점의 봄을 안아온 거룩한 발걸음

판문점은 세인이 다 아는 유명한 곳이다. 조선반도의 분단선 한복판에 자리잡고 세월의 오가는 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진정한 봄을 몰랐던 판문점이었다. 오랜 세월, 사시장철 대결과 긴장의 얼음만이 두텁게 깔려있던 판문점에 봄이 오고 어느덧 비무장화추진으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로 조선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재중동포 김순경